

“정보는 미래사회를 어떻게 재편하는가”

정보혁명에 의한 미래상 조망 ... 국내 현실에 자극제 역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보혁명, 정보 초고속도로, 멀티미디어란 말만큼 자주 듣는 말도 없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는 기껏해야 주문형 비디오나 홈쇼핑, 재택근무 등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발전된 기술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를 가리켜 “맘모스의 꼬리털을 더듬는 정도”일 뿐이라고 표현한다. 정보혁명이 불러일으킬 미래의 모습은 결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서점가에는 맘모스의 꼬리털이 아니라 맘모스의 실체를 보여주는 책들이 다수 출간되고 있어 신문·잡지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미래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게 한다. 《정보 슈퍼하이웨이 길라잡이》(김영사) 《빌 게이츠의 멀티미디어 전략》(명진출판) 《앨 고어의 정보 초고속도로》(길벗) 《정보 고속도로 & 뉴비즈니스》(김영사) 《미국 하이테크 산업의 세계화 전략》(전자신문사) 등이 그런 내용을 다룬 책들로, 《레블루션 X》 《인터넷 혁명》 등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파괴되고 있다”

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많은 책들이 정보혁명을 기업발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앨 고어 정보 초고속도로》(박태권 지음)는 1000가지에 이르는 초정보 혁명의 사례를 통해 지구촌 미래사회의 그랜드 플랜을 그려보임으로써 일반인들의 무지를 깨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저자는 이미 지난해말 미래사회를 이끌 주역들을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127대 파워》를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목했던 미국의 글로벌 뉴스왕국 CNN이나 정보 초고속도로의 건설자 앨 고어 등 정보혁명의 주체들은 《...정보 초고속도로》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진다. 저자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상가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는 미국의 부통령 앨 고어의 정보 초고속도로 구상을 토대로 서술하고 있다.

앨 고어가 주장하는 정보 초고속도로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 인터넷의 무한대에 가까운 잠재력을 이용, 국가기관의 공개·비공개 네트워크를 모두 연결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가정까지를 정보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미(全美) 연구교육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고어

는 “이 구상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00년에는 각 가정, 기업, 연구소, 병원, 학교, 도서관, 유통업체를 촘촘히 연결하는 정보 초고속도로가 완성돼, 미국은 ‘지구촌 최대의 울트라 파워’로 거듭 태어나 21세기에든 전세계를 계속 지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의료, 환경 등 제반 복지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한다.

철저히 ‘양극증’에 입각한 그 구상에 의하면 정보 초고속도로가 응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다. 도서관, 교육, 제조업, 전자거래, 환경 모니터, 의료·보건, 행정서비스... 이 가운데 “정보 초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야는 교육·연구계가 될 것”이라고 고어는 전망한다.

가령, 정보혁명은 ‘놀이’가 ‘공부’의 적대 개념이었던 시대를 막내리게 한다. 정보혁명의 가장 훌륭한 교육수단은 전자오락 소프트웨어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이름하여 ‘에듀테인먼트’. 오락문화의 천국이자 전세계에서 교육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최근 교육계가 아닌 오락게임 소프트웨어업계가 주도하에 급세기 최대의 ‘교육혁명’이 진행중이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다이너소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쥐라기 공원》의 흥행에 편승해 만든 에듀테인먼트 소

프트웨어로 고생물학자가 나와 알기쉬운 도표와 친절한 해설로 어린이들을 신비로운 선사시대 동물세계로 인도하는 프로그램. 정보 초고속도로가 1차목표 연도인 2000년에 완성되고 세계 곳곳에 지구촌 정보고속도로가 뚫리면 전세계적으로 대화형 에듀테인먼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보 초고속도로가 바뀌놓을 세기말의 정보혁명은 이것만이 아니다. 기존의 모든 관념들, 생활들, 노동들, 교육들도 가공스런 힘으로 무차별 파괴되리라고 전망한다. 가령, 요즘 전세계적으로 번지는 ‘가격혁명’은 정보혁명을 통해 유통마진을 줄였기 때문에 일어났으며, 정보를 만질 줄 모르는 간부들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인사파괴’도 그 여파다. 반면, 육체노동자의 몸값은 폭락하는 대신 정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두뇌노동자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앨 고어...》는 전자도서관 등 정보혁명의 세례를 잘 활용해 21세기를 주도할 ‘장발적 두뇌’를 키워내는 학교만이 1류로 자리매김되

고 있다며, 기존의 1류 2류 3류로 구분되던 학교간의 장벽이 무너져내리는 현장을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에듀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텔레데모크라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을 지내고 현재는 쌍용컴퓨터 고문으로 있는 최병항 씨가 쓴 《정보고속도로 & 뉴비즈니스》 역시 CATV, 원격의료, 홈쇼핑 등 정보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앨 고어...》가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초정보사회의 미래를 각 부문에서 점검했다면, 《정보...》는 이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리 ‘업계’와 ‘정부’의 동향과 미래전망을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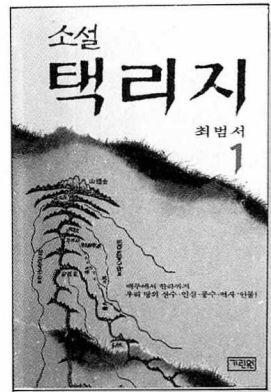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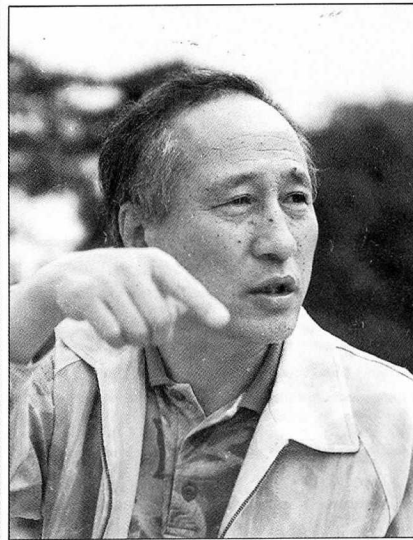
앨 고어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NII전략의 실체, 미국에 자극받은 일본의 맹렬한 추격, 아시아 각국의 숨겨진 움직임들이 소개돼 있다. 또한 AT & I, 애플, 모토로라, 필립스, NTT, 마쓰시다, 소니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미래전망을 비롯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정



《인터넷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남사) 중에서.

‘야적(野的) 기질의 선각자’ 청담의 생애

《소설 택리지》 펴낸 최범서씨



누구나 한번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 떠돌아다니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김시습과 김삿갓의 이야기가 입지전적인 인물들의 성공담만큼이나 두루 사랑받는 것도 그런 인지상정 때문일 것이다. 조선후기에 나온 지리서 《택리지》의 저자인 실학자 청담 이중환(淸潭 李重煥(1690~?))의 생애는 그와 같은 ‘방랑인’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청담은 사대부로서 입신출세의 길이 좌절되자 삼십년 동안 이땅의 구석구석을 밟아다니며 ‘홀로’ 선각자적인 업적을 이뤄낸 뒤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저서의 명성에 비해 청담의 행적은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아왔는데, 최근 그의 삶을 그린 《소설 택리지》(기린원)가 전 3권의 장편소설로 출간됐다.

“청담은 《택리지》 말고는 거의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다. 《조선왕조실록》에 청담과 관련된 부분은 이백자 원고지 삼십매 분량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가 관직에 있을 때의 기록뿐입니다. 그밖에 재종조부였던 성호 이익이 쓴 짤막한 묘갈명(墓碣銘) 정도가 남아 있지요.”

《소설 택리지》의 작가 최범서씨(55)는 청담이 관직에서 물러나 유배생활을 마친 뒤 방랑하며 《택리지》를 썼던, 가장 중요한 삼십년간의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집필 초기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결국 최씨는 92년 봄, 청담이 다녔을 만한 곳을 현지조사하는 것으로 자료수집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청담의 주 활동무대였으리라고 추측된 곳은 청담의 주 활동무대였으리라고 추측된 곳은 청화산과 상주, 속리산, 그리고 강경 공주 부여 익산 등을 망라하는 금강 일대였다. 그곳들을 일일이 답사하는 한편, 청담과 동시대인으로 활약했음직한 인물들의 행적도 함께 추적해갔다.

“참 이상하지요, 순암 안정복을 비롯해 동시대 지리학자들의 기록은 모두 남아 있는데 청담의 삶만이 세월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고, 복권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평생토록 응하지 않았던 거죠. 참 꼬장꼬장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후손들을 만나보았는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빛이 형형한, 무척 고집스러운 어른이었다는 말만 전해 내려온다더군요.”

최씨는 청담이 시재(詩材)가 뛰어난 당대의 예술가였으며, 소설을 쓰는 동안 줄곧 그의 “독특한 매력에 흠뻑 빨려들어가” 있었다고 말한다. 《소설 택리지》에는 관리들의 횡포와 잦은 민중봉기로 혼란스러웠던 영조 초기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그 ‘꼬장꼬장한 야적 기질’을 지닌 청담의 방랑생활이 그려져 있다. 청담이 답사했던 지역들의 지리와 풍속, 인물 등의 내용도 《택리지》의 꼼꼼히 검증된 번역문으로 함께 실려 있다. 아울러 묘한 인연으로 만난 절세미인 도희, 후에 보림비구니가 된 산골처녀 다임과의 사랑이야기도 곁들여져 있다.

“이 소설을 통해 독자들이 《택리지》를 새로운 눈으로 읽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고전 중의 고전이라면서 실제로 읽은 사람은 드물고, 간혹 풍수책쯤으로 여기는 사람까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선각자적인 발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택리지》는 의미 깊은 저작입니다.”

‘원고지와 직접 맞닥뜨리는 긴장감을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지금까지 펜으로 원고 쓰기를 고수해온 최씨는 현재 6·25를 배경으로 한 성장소설을 준비하고 있다.

—한 강 기자

최근 서점가에는 정보사회의 미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책들이 나와

지구촌 앞날의 그랜드플랜을 화려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각 가정과 기업

연구소 병원 학교 도서관을 촘촘히

연결하는 정보 초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교육과 제조업, 전자거래

환경모니터, 의료보건, 행정서비스 등

전문가에 걸친 파격적인 변화를

몰고오리라는 전망이다.

보 초고속도로 정책 등이 주요 내용. 저자는 “정보 슈퍼하이웨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강조한다.

신문기자 출신의 마이클 설리번 트레이너가 지은 《정보 슈퍼하이웨이 길라잡이》 역시 정보 초고속도로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를 한눈에 그려볼 수 있게 조목조목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당신과 자녀들이 정보 슈퍼하이웨이를 준비해야 할 때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컴퓨터 기술의 도움으로 아주 간단히 온라인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정보 슈퍼하이웨이의 세계속으로 자신있게 걸어들어가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며 독자들을 정보혁명의 세계로 유인한다.

이 책이 주목한 분야는 정보와 오락을 통합한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온라인 닥터의 원격의료, 교실을 없앤 원격학습, 차세대 문화인 사이버스페이스, 인간의 경험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또하나의 현실인 가상현실 등에 대해서다. 가령, 현재 플로리다에 있는 에프코트 센터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MGM 스튜디오의 테마파크는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다. 에프코트 센터에 있는 ‘몸의 전쟁’(Body Wars)은 거대한 가상 인체속으로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스타 투어’, ‘백 투더 퓨처’는 영화 《스타 워즈》에 나오는 우주선을 타고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거나, 시간여행을 경험하게 한다. 입장료를 내고 줄을 서야 즐길 수 있는 ‘별난 체험’은 머잖아 정보 초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가정과

직장에 앉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날이 온다. 가상현실은 오락에 그치지 않고 의학, 우주, 공학설계에도 이용되어 가상환자를 진단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주공간을 걸어다니며 갖가지의 우주실험을 펼쳐 과학혁명을 주도한다.

《미국 하이테크 산업의 세계화 전략》(스티븐 브래들리 지음, 김광수 옮김)은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기업을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세계 산업에서 통신업계의 급격한 부상과 독점화, 점증하는 통신에 대한 일반의 욕구를 살펴본다. 이와함께 《빌 게이츠의 멀티미디어 전략》(와키 히테오 지음, 오해석 옮김)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메이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리더인 빌 게이츠의 야망을 통해 세계를 상대로 한판의 정보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야심을 들춰보여 관심을 끈다.

정보혁명이 정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곧 출간될 《레블루션 X》(로브 넬슨 외 지음, 길벗)에서 상세히 전망된다. 이 책은 미국의 청년 정치조직 ‘리드 오아 리브’(Lead or Leave)의 정치활동을 다룬다. ‘정보혁명의 아들들’인 X세대는 어떻게 정치에 참가하는가. 그들은 사무실에서 모이지 않는다. 각자의 컴퓨터 앞, 인터넷이 정치회합의 장소다. 이미 100만명을 넘어선 ‘당원’들의 파워는 현재 상당하다.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정보 초고속도로가 완성되면 ‘텔레데모크라시’는 더욱 확산될 것이고 기존 정당체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도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정보혁명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들 책의 국내 저·역자들이 한결같이 던지는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공통적인 점은 그들이 우리나라 정보혁명의 앞날을 대단히 절망적으로 내다본다는 것. 하지만 “정보혁명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도전장을 던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자들이 지적하듯 책은 수시로 변하는 디지털 정보혁명의 현장을 다 담아내기에는 엄청난 역부족인 매체다. 이곳저곳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졌던 것을 한자리에 모은 이 책들은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이거나 정보혁명의 미래를 엿보게 하고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혜옥 기자